

# 새누리당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찬반 뜨거워

지난 4·13 총선 패배로 가라앉았던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27일) 청와대도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택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입장을 바꿔 놓았다.

그런 만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양적완화는 전통적 정책수단인 금리조정을 통한 간접적 통화량 관리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휘해 채권을 매입 시장에 돈이 풀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담보대출(MBS)을 매입해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 분할로 전환,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청와대는 선별적 구조조정이란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로 범위를 더 좁혀 이에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듯 '한국판'이란 수식어가 붙어 특수성을 띠다 보니, 우선 한국판 양적완화를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져 분분하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산금채를 사들여 부

## 한은이 산금채 매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놓고 대기업 지원책에 불과·금리 인하 여력 있다는 반대와 강력한 단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팽팽히 맞서

실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일 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중앙은행이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시대의 정책금융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도 특정 산업에 국한해 돈을 주지는 않았다"며 "이것이 중앙은행의 최후의 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쥐어줄 경우 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산은은 1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렸지만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이 400%를 돌파했다. 위기관리·경영 능력이 없는 기관을 지원한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다.

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정도로 현 상황이 위기는 의문도 제기된다.

미국 등 양적완화를 시행한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낮춘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택했다.

시기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은 뒤였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 금리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추가 경기예상 편성이라는 카드도 아직 남아있다. 반면 양적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국내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기초적인 추세를 보기 어려워, 한국 경제가 이미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다.

15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산업생산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소비·투자는 두달 연속 감소세다.

양적완화라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한 비전통적 정책인데, 제로금리·마이너스 금리 이후 양적완화라는 선진국의 수순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금리인하가 자금유출 가능성을 높여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라는 실험은 절제해 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의견이다.

시기적으로도 현재이탈로 강력한 단기부양책인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의 특성상, 대신 정권이 시작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서둘러야 한

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대선정국에선 구조조정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한은 발권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는 한국판 양적완화 외에 별다른 국책은행 자본확충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한 익스포져 중 산은·수은 등의 특수은행이 15조원을 갖고 있다. 기업의 부실 문제로 지난해 산은은 당기순손실 1조8851억 원을 수은은 전년 대비 51.8% 줄어든 411억2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산에서 산금채나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안"이라며 "민와 산에서 산금채 발행하고 이걸 한은이 인수하면 그게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형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은법 제76조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여수시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형 양적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27일) "(한은의 산은의 산금채 인수를 위한) 한은법 개정 정도는 야당이 협조해 풀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현대자동차, 아반떼 스포츠 출시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스포츠(Sport)'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반떼 스포츠는 ▲1.6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Double Clutch Transmission)를 조합해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0km/1를 달성했다.

아울러 ▲패들 슈프트 ▲D컷 스티어링 휠 ▲스포츠 버킷 시트(좁은 길이나 고르지 않은 노면을 빨리 달릴 때 자세를 잡아주는 시트) ▲스포츠 모델 전용 클러스터 ▲통항 주행 모드 시스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핵심사양을 대거 적용해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극대화했다.

아반떼 스포츠의 외장 컬러는 피닉스 오렌지, 블레이징 옐로우 등 스포츠 모델 전용 컬러 2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컬러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아반떼 스포츠를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에 적합한 차량으로 튜닝해 5월에 개최되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KSF) 2차전의 '아반떼 챌린지 레이스'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아반떼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수동변속기(M/T) 모델이 1963만원 ▲7단 DCT 모델이 2158만원 ▲다양한 고급사양이 추가된 익스트림 셀렉션 모델이 2410만원이다. /인진수 기자

###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운영 시작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고받는 '카카오페이 송금'이 28일 운영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없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부치게 한다. 현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한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해당 은행 계좌 잔액을 '카카오페이'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받는 것은 계좌연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충전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1일 송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성인은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19세 미만 고객은 돈을 받는 것만 가능하며 잔액 한도는 50만원이다.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네번째 '더보기' 탭 혹은 카카오톡 대화창 왼쪽에 위치한 '+' 버튼을 누른 뒤 '송금'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송금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음원 서비스 '카카오뮤직', 주문제작 생산 서비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펀'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펀 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송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펀 브랜드가 한단계 진화했다"며 "참여 금융기관과 온·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최대폭

### 2년 8개월만에 1.94%p 격차

3월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2년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월중 금융기관 기준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56%로 전월보다 0.02%p 떨어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3.50%로 전월대비 0.03%p 상승했다.

이에 3월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5%p 늘어난 1.94%p를 나타내며 지난 2013년 7월(1.96%) 이후 2년8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74%)부터 석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개월새 격차가 0.2%p 확대된 것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미진도 좋아졌다. 지난달 예대미진은 2.18%p로 전

월보다 0.01%p 오르면서 지난해 12월(2.15%p)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낙타처럼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예금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석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연 1.54%로 전월보다 0.02%p 떨어졌다. 이중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4%로 0.02%p 하락했다. 특히 정기적금 금리(1년)는 0.02%p 떨어진 1.79%로 지난 1998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제외하고는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3.60%로 지난해보다 0.03%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연 3.79%로 0.04%p 떨어졌지만 대기업 대출 금리가 연 3.28%로 0.05%p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진수 기자



일자리 정보 꼼꼼히 2016년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28일 모 대학교의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많은 구직자들이 협력사 업체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인진수 기자

구독신청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